



불어오는 바람에 갈대잎이 물결치듯 일렁이는 순천만을 거닐어보라. '순천만 갈대길'은 해룡면 와온마을에서 출발해 별랑 화포까지 갯벌생물과 자연생태계를 관찰하며 걸을 수 있는 도보길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바람에 춤추는 금빛 물결... 눈부신 가을 산책



〈38〉 순천만 갈대길

해룡 와온 ~ 별랑 화포



“따뜻하게 누워있는 바다”... 와온(臥溫)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광재구 시인의 어느 글을 통해서였다. 지난 2002년 펴낸 ‘포구 기행’뿐만 아니라 시인의 글 여기저기에서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마음의 고향’이라는 와온바다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때 어떤 그리움에 와온을 불쑥 찾아가 적어 있다.

순천만 흘러드는 물길따라 아름다운 갈대천국 철새 노닐고 갯벌생물·습지식물 어울려 장관

시인은 “...마음안에 상채기를 지닌 채 와온에 이른 사람들은 금세 이 바다의 싱싱한 삶의 냄새에 동화되기 마련이지요. 넓은 갯벌위에 잠시 지친 육신을 놓고 저무는 금빛 햇살을 만나노라면 마음안에 알 수 없는 삶의 향기 하나가 스쳐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와온빛길로 물드는 바다=오랜만에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와온마을을 찾아가는 길. 마을에 들어서자 뒀산 기슭에 한창 공사중인 한옥편선이 눈에 띄었다. 마을 뒷산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한다. ‘소코바위’와 ‘구시골’ 등 소와 관련된 지명이 재미있다.

이번 도보여행 목적지는 순천시가 조성한 ‘남도 삼백리길’ 1코스인 ‘순천만 갈대길’(16km). 이 가운데 와온마을에서 출발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까지 절반 구간을 걷는다. 순천만은 2568ha(776만 평)의 넓은 갯벌과 갈대, 철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 보고(寶庫)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힌다.

갯길을 마친 주민 유유심(52)씨가 뽕배에 노란 박스에 망태를 싣고 물으로 나왔다. 유씨는 마을 방파제 앞에 만들어진 네모난 돌방에서 갯흙을 씻어내고 망태 3개를 수레에 옮겨 실었다. 그물망태속에는 4시간 여의 작업 끝에 잡은 칠게와 송어, 운저리, 낙지, 복제기, 보리새우 등이 가득했다. 이 가운데 송어만 따로

추려 서울 음식점으로 보낸다고 한다.

와온 관광문화관에서 시작해 마을 정자인 일물정을 지나 초록색 탄성포장 길로 접어든다. 일물정앞에 세워진 마을유래비에는 와온마을에서 전국최초로 새꼬막 종패 채도가 개발됐다고 적혀있다.

와온마을로 이어지는 863번 지방도로변은 일물 명소로 널리 알려져 조급색 변화하고 있다. 와온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문국현(32·여·수시)씨는 “와온 바다색깔은 올 때마다 날씨가 따라 다르다”며 “일물때 와온빛길로 물든 바다색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와온공원을 지나 순천만 에코비치 캐슬에 이르면 갯벌 한가운데 자리한 숲섬이 눈길을 끈다. 독길을 따라 걸으면 제방수문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순천만 갈대길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는 붉게 변한 철면초와 함께 팔팔팔팔 뛰 어가는 쟁쟁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갯벌은 어린아이들이 방금 소꿉장난을 마친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다. 하지만 자세를 낮춰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쟁쟁어들이 드나드는 구멍과 게 등이 집을 지으며 쌓아둔 흙 무더기임을 알아채게 된다. 생명이 뛰노는 놀이터이자 삶터이다.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은 순천만 S자 물길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용산 전망대이다. 도보길은 자연스럽게 높지않은 야산에 조성해 놓은 전망대로 이어진다. 전망대에는 일몰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작가와 이를 보고자 하는 탐방객들이 어우러져 북적거렸다. 이윽고 해가 서산너머로 졌다. 해넘이후 서늘하늘 빛깔은 시나브로 붉은 빛에서 푸른 빛으로, 다시 검은 빛으로 변했다. 여행자들은 광대한 시간이 빚어내는 ‘푸른 행성’의 장엄한 자연 풍광앞에 숨을 죽였다. 노을속에서 빛나는 월령 1.7일 초생달과 개밥바라기(금성)는 일몰후에도 자리를 지킨 몇몇 사람들만이 눈에 담은 호사를 누렸다. 용산전망대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까지는 30여분 거리. 잘 만들어진 나무데크를 따라 유유자적 하며 바람과 갈대소리, 철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사색의 길이다.

‘순천만 갈대길’ 구간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별랑 장산을 거쳐 화포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순천만을 따라 자연생태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해안길이다. 또한 세상살이에 힘들고, 외로울때 달려가면 언제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 품같은 길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김은종기자 jjy@kwangju.co.kr



순천만 대표생물인 쟁쟁어.

■ 순천 생태탐방로 (남도 삼백리길)

11개코스 223km 조성 구간별 테마관광 개발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갈대길’(1코스) 등 지역생태와 역사문화를 연결한 모두 11개 코스의 ‘남도 삼백리길’(223km)을 조성했다.

‘남도 삼백리길’은 별랑 화포에서 출발해 동화사에 이르는 ‘꽃산너머 동화사길’(2코스·20km)외에도 ▲3코스 읍성가는길(14km) ▲4코스 오치오재길(20km) ▲5코스 매화향길(25km) ▲6코스 삼재팔경길(15km) ▲7코스 과거관문길(19km) ▲8코스 동천길(12km) ▲9코스 천년불심길(12km) ▲10코스 이순신 백의종군 길(25km) ▲11코스 호반빛꽃길(45km)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2코스는 순천만 해안길과 마을길을 감상하며 걷는 해안·마을길 복합구간이며, 순천서문 성곽터에서 출발하는 7코스는 한양으로 가던 옛길(과거길)로 마을마다 정자가 있어 쉬어가기 편하다.

‘남도 삼백리길’은 코스별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숙박시설 등을 연결한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으로 개발돼 도보여행중에 자연생태체험(순천만)을 비롯해 ▲산나물체험 등 산촌체험(고산마을) ▲매실·복숭아 따기(월동 계월마을) 등 녹색농촌체험 ▲조선시대 생활체험(낙안읍성)을 할 수 있다.

2011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실천주간

2011.11.1(화)~11.4(금)

학술행사 전남도청 왕인실(4층)

- 11.1(화) 14:00
풍력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심포지엄
- 11.2(수) 13:30
전라남도 그린리더 협의체 발대식

전 시 전남도청 윤선도 홀(1층)

- 녹색성장 우수사례
- 녹색제품(공산품, 농축산물)
- 신재생 에너지 작품
- 환경 사진

참여행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

- 녹색성장 이동 체험관
- 나눔장터
- 환경영화상영(김대중광장)

지구를 살리는 녹색성장 10대 실천 과제

- 개인컵 사용하기
- 손수건 사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 승용차요일제 참여
- 장바구니 사용하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알맞은 실내온도 유지하기
- 당장 안쓰는 플러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 이면지 활용하기

